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5호 2014. 05 83~100쪽

사이버범죄에 대한 미디어의존과 위험 심각성 및 주관적 지식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ublic's Media Dependency, Risk Severity, and Subjective Knowledge on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Cyber Crime

Hae Ryong Song**, Chan Won Kim***, Won Je Kim****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ublic's media dependency, risk severity, subjective knowledge on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cyber crime.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s' media dependency related with cyber crime issue and information influenced positively on risk severity. Second, publics' media dependency related with cyber crime issue and information influenced positively on subjective knowledge. Third, risk severity related with cyber crime influenced positively on subjective knowledge. Fourth, risk severity related with cyber crime influenced positively on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Fifth, subjective knowledge related with cyber crime influenced positively on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Key words: cyber crime, risk severity, subjective knowledge, media dependency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30-2011-1-B00228).

** Tel. +82-2-760-0419. E-mail. imokwg@daum.net

*** Tel. +82-2-322-6538. E-mail. ares6357@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Tel.+82-2-322-6539. Fax. +82-2-322-6536. E-mail. wonje5@daum.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y. 05, 2014 / Revised: May. 20, 2014 / Accepted: May. 29, 2014

1738-8368 © 2014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www.kci.go.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중의 행위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문헌검토를 통해 다양한 심리학적 요인들을 추출, 공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검증하였다. 이에 가설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미디어의존은 공중의 위험 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중의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미디어의존은 주관적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주관적 지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사이버범죄 예방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중의 주관적 지식은 예방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디어는 새로운 기술적 위험에 대해 공중이 올바르게 위험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당사자들(정부, 공중, 전문가)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며, 과학적 지식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되거나 전달되지 않도록 정보와 지식의 다원성을 추구하고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이버범죄, 위험 심각성, 주관적 지식, 미디어의존

Ⅰ.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사회로서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사이버범죄에 대한 발생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2014)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요소가 포함된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인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전자상거래 사기(통신, 게임), 프로그램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불법/유해사이트 운영(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협박 및 공갈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 사이버범죄로 분류된다.

국내의 사이버범죄는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일반 사이버범죄는 2010년 104,615건, 2011년 103,565건, 2012년 98,616건으로 사이버테러형 범죄(2010년 18,2287건, 2011년 13,396건, 2012년 9,607건)에 비해 높은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2월에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10대 과제 속에 사이버범죄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사이버범죄는 육체적 폭력은 없으나, 사이버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폭력(Hua & Bapna, 2013)이며, 우리사회와 경제,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Hardy, 2011). 특히, 사이버범죄는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간다는 특성

www.kci.go.kr

을 보인다(Hua & Bapna, 2013). 세계가 처한 위험현실의 지형을 보면, 최근 6년간 빠르게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2012년 기간 중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영역 중 하나로 사이버테러 및 범죄가 선정되기도 하였다(김한균, 2012).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상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Embar-Seddon, 2002). 한국은 세계 1위의 인터넷 및 인프라 강국이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주요 표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이버범죄는 정부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위험영역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보안이나 안전의식을 높여 국민 스스로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 행동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Kao, *et. al.*(2010)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반 공중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인지적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김미량 외(2007)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예방을 위한 자성과 사회규범의 확산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중들을 대상으로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계몽'(송해룡, 2012)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위험은 공중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커뮤니케이션은 공중과의 관계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히 정보제공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교육 또는 예방행위(김원제 외, 2009)를 촉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이버범죄와 같은 기술위험은 해당 위험이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인해 공중이 그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깨닫기가 쉽지 않고, 위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범죄와 같은 기술위험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표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행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설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중의 사이버범죄 예방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위험은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위험수준이 각기 다르고, 그 위험을 판단하는데 있어 대부분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 즉 간접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 인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중의 전반적인 위험인식 구조와 행동을 파악하는데 있어 심리측정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송해룡・김원제, 2005), 이러한 심리측정패러다임은 공중의 위험인식 구조 및 행동과 관련된 전반적 이해를 제공, 공중의 위험에 대한 반응을 예측

www.kci.go.kr

하게 함으로서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 그 중에서도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일반 사이버범죄의 발생 건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제외한 일반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예방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 문헌검토

1. 공중의 위험정보 미디어의존과 위험 심각성 지각

미디어의존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은 개인이 특정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미디어의 메시지효과도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위험에 대해 공중은 적절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설사 위험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Jin & Han, 2014). 이로 인해 특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결과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다는 것이다(Ball-Rokeach, 1985). 그러므로 위험과 관련된 정보는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이라는 특성을 띠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공중이 특정 위험이슈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in & Han, 2014). 위험상황과 미디어의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공중이 위험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고, 자신이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위험이며, 잠재적 위험상황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를 경우에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즉, 공중들은 위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정보소통체계, 즉 미디어를 통해 위험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미디어 의존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송해룡 외, 2012). 그러나 미디어는 위험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위험사건을 드라마틱한 기사거리로 인식하고,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키며, 그 사회 내에서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기도 한다(송해룡 외, 2013; Kasperson, *et. al.,* 2001). 다시 말해서, 미디어의 특정 위험에 대한 부정적 프레이밍은 공중에게 공포감이나 두려움, 불안감을 증폭시켜 기술적 안전성과는 상관없이 특정 위험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거나 반대하도록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사례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들 수 있는데, 국내 미디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도하는데 있어 기사의 헤드라인과 표제 및 부제, 사진 그래픽 등을 통해 선정적으로 재난을 묘사하는데 치중함으로서 공중의 마음속에 과도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자리잡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백선기・이옥기, 2011; 심준섭・김지수, 2011). 결국, 미디어가 특정 위험에 대해

www.kci.go.kr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곧 공중이 특정 위험을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백선기・이옥기, 2011).

Sjöberg, *et. al.*(2004)는 공중이 특정위험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 그 위험의 발생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한다고 하였고, 공중이 지각하는 심각성 정도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특정 위험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공중의 공포감과 두려움 정도가 달라지고, 이는 공중의 위험 심각성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기도 하는데, 송해룡・김원제(2005)는 미디어가 위험을 보도하는데 있어 대부분 비난과 공포 등과 같은 비기술적 이슈인 불법행위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경향이 많다고 비판하였으며, 김인숙(2012)도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증폭시켜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중은 위험 정보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높고, 미디어는 위험을 보도하는데 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공중의 공포감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특정 위험에 대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을 높이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위험 심각성을 결정한다고 볼 때, 공중이 특정 위험을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새로운 위험을 들 수 있다. 즉, 새로운 위험은 알려지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그 위험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은 비교적 새로운 위험에 대해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송해룡・김원제, 2005; 송해룡 외, 2013). 이를 고려한다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일반 사이버범죄도 공중의 입장에서 새롭고 막연한 위험이며, 공중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공중은 일반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에 대해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의존 정도에 따라 일반 사이버범죄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 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중의 미디어의존은 위험 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주관적 지식과 위험 심각성 및 예방의도

일반적으로 사전지식은 소비자 영역에서 자주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소비자의 전반적인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전홍식・부이응옥중, 2011). 특히, 사전지식은 소비자의 경험과 정보탐색을 통해 축적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가 된다(Duhan, *et. al.,* 1997). 일반적으로 사전지식은 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Flynn & Goldsmith, 1999)로서 소비자 영역에서 제품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lba와 Hutchinson(1987)에 의하면, 사전지식은 친숙성(familiarity)과 전문성(expertise)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

www.kci.go.kr

로 분류된다. 친숙성은 제품 관련 경험의 양으로서 이전의 구매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전문성은 제품 관련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과 상응하는 제품 이용 및 전문지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지식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된다. 사전지식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되는데, 객관적 지식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것이며,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은 부분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알고 있다는 것에 의존하고, 알고 있다는 느낌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지식은 지식에 대한 자각과 같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의 양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auzente, 2010; Rao & Sieben, 1992).

다만,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간의 상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Flynn & Goldsmith, 1999; Park, *et. al.,* 1994; Raju, *et. al.,* 1995)은 두 개념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주관적 지식은 객관적 지식보다 소비자 행동의 강력한 동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품관련 경험은 객관적 지식보다 주관적 지식과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결정과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Jin & Han, 2014).

위험연구 영역에서도 지식은 공중의 전반적 위험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요소로서, 자발성과 통제성, 그리고 친숙성 등과 함께 위험인식 및 위험수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정・성민정, 2011). 미디어의존이론에 의하면, 특정 위험에 대한 공중의 지식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공중은 위험정보와 관련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미디어에 의존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의 목적달성과 일치될 때, 그리고 그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경우에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짐으로서(김진영, 2003; 차동필, 2011), 결과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Fleming, *et. al.,* 2006; Rousu, *et. al.,* 2007)은 식품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습득된 정보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고, 특히 미디어가 식품안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결정됨을 강조(Jin & Han, 2011)하여 특정 위험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와 공중의 관련 지식 형성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위험인식과 마찬가지로 공중의 주관적 판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중이 미디어를 통해 특정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지각할 경우에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탐색 및 정보처리 행동(김수정・성민정, 2011)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위험인식은 두려움 및 지식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인숙, 2012; Mauro & McLachlan, 2008; Siegrist & Cvetkovich, 2000). 이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보탐색을 통해 주관적 지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www.kci.go.kr

가설 2.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중의 미디어의존은 주관적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주관적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특정 사건에 대한 심각성은 공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중이 심각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위험 심각성은 위험발생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공중의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jöberg, *et. al.,* 2004), 이러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은 공중의 예방행동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itte, *et. al.*(2011)은 사람들의 경우에 특정 위험이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사람들은 공포감을 제거하기 위해 메시지가 권고하는 특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유선욱 외, 2010). 이와 관련하여 신종플루나 결핵과 관련된 메시지와 예방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공포감이 신종플루나 결핵 관련 예방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여(유선욱 외, 2010; 조성은 외, 2012) 공포감에 기인한 위험 심각성도 예방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위험연구 영역에서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김종흠(2013)의 연구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친환경 행동의도가 높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개인의 지식수준도 건강 예방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골다공증 지식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행위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서순이・이정순, 2012), 예방접종 의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지식이 예방접종 의사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성민정・김수정, 2010). 이상과 같은 논의에 따라 공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심각성과 주관적 지식은 사이버범죄 예방행동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예방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주관적 지식은 예방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www.kci.go.kr

2013년 1월에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총 인구조사 결과기준을 통해 할당 표집하여 최종적으로 500명의 자료를 선정,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2010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특별법 위반 범죄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249명(49.8%), 여성 251명(50.2%)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43.69세(SD=13.09),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36명(7.2%), 고등학교 졸업 217명(43.4%), 대학교 졸업 236명(47.2%), 대학원 재학 7명(1.4%), 대학원 졸업 4명(0.8%)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

1) 미디어의존

본 연구에서 미디어 의존은 TV를 통해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동필(2011)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미디어의존은 총 3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주요 문항으로는 '미디어(TV)는 사이버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는데 도움이 됨', '국내에서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데 도움을 줌'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위험 심각성

본 연구에서 위험 심각성은 주관적 측면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청 산하 사이버테러대응센터(2014)의 사이버범죄 분류 기준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유출, ID도용, 인터넷사기-피싱, 악플, 도박이나 자살, 음란, 폭탄제조 등 유해사이트 및 콘텐츠, 주민번호 도용, 잘못된 정보유포와 확산,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위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 심각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주관적 지식

본 연구에서 주관적 지식은 사이버범죄 관련 이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지식은 Flynn & Goldsmith(1999), 김수정・성민정(2011)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총 6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주요 문항으로는 '사

www.kci.go.kr

이버범죄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 '타인과 비교할 때, 사이버범죄 이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예방 및 대처법을 잘 알고 있음'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예방행동 의도

예방행동 의도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개인들의 외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외적 행동을 하려는 내적 의지를 말한다(조성은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수칙 이행 가능성에 대한 내적 의지로 설정하고, 2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수칙을 따를 의도나 예방수칙을 따를 가능성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IBM SPSS 20과 IBM AMO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고,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여 전반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경로분석(p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타당도 평가

본 연구에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였으며, KMO값을 통해 관련 문항이 요인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관적 지식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92,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χ^2=2464.32(df=15), p<.001로 나타났고, 아이겐값(eigenvalue)은 4.60, 설명력은 76.69%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심각성의 경우에는 KMO=.91,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χ^2=2722.91(df=45), p<.001로 나타났고, 아이겐값(eigenvalue)

www.kci.go.kr

은 5.59, 설명력은 55.95%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적합도 평가는 절대적합지수(χ^2, RMR, GFI)와 증분적합지수(NFI, IFI, CFI)를 활용하였다. 특히, 카이스퀘어(χ^2) 값의 경우에 표본의 수에 민감하여 p-value가 유의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나머지 적합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적합도 기준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적합도 기준

	χ^2	RMR	GFI	NFI	IFI	CFI
적합기준	p>.05	≧.60	≦.90	≦.90	≦.90	≦.90

먼저 사이버범죄의 주관적 지식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32.79(df=9), p<.001, RMR=.01, GFI=.97, NFI=.98, IFI=.99. CFI=.99로 나타났다. 비록 카이스퀘어(χ^2) 값이 적합기준의 수용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적합지수인 RMR, GFI, NFI, IFI, CFI가 모두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의 위험 심각성의 경우에는 χ^2=336.75(df=35), p<.001, RMR=.04, GFI=.86, NFI=.87, IFI=.88. CFI=.88로 나타나 RMR를 제외하고 카이스퀘어(χ^2), GFI, NFI, IFI, CFI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문항에 걸쳐 높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을 보이는 문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이학식・임지훈, 2009). 그 결과 사이버스토킹이 사이버성폭력(MI=100.52), 사이버명예훼손(MI=40.56) 등에서 높은 수정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스토킹 문항을 삭제하고 재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최종 결과를 보면, χ^2=169.24(df=27), p<.001, RMR=.03, GFI=.92, NFI=.92, IFI=.93. CFI=.93으로 표본의 수에 민감한 카이스퀘어(χ^2)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적합도

	χ^2	RMR	GFI	NFI	IFI	CFI
주관적 지식	32.79(p<.001)	.01	.97	.98	.99	.99
위험 심각성	169.24(p<.001)	.03	.92.	.92	.93	.93

일반 관측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표준화 값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적 지식은 β=.83~.90, 위험 심각성도 표준화 값이 β=.60~.76으로 나타나 최소 기준인 .40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적일치도는 주관적 지식 Cronbach′α=.93, 위험 심각성 Cronbach′α=.91로 비교적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관적 지식과 위험 심각성은 비교적 양호한 모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주관적 지식과 위험 심각성)

변수	잠재변수→관측변수	표준 β	S.E.	t
주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사이버범죄에 대해 비교적 익숙하다고 생각	.90	-	-
	주관적 지식→사이버범죄에 대해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	.86	.03	28.07***
	주관적 지식→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예방 및 대처법을 잘 알고 있음	.83	.03	26.41***
	주관적 지식→타인과 비교할 때, 사이버범죄 이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	.83	.03	25.80***
	주관적 지식→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	.84	.03	26.53***
	주관적 지식→사이버범죄 이슈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	.81	.03	24.46***
위험심각성	위험 심각성→사이버성폭력	.71	-	-
	위험 심각성→사이버명예훼손	.72	.06	15.61***
	위험 심각성→잘못된 정보유포/확산	.76	.06	16.15***
	위험 심각성→주민번호도용	.65	.06	13.83***
	위험 심각성→도박, 음란 등 유해사이트	.76	.07	16.38***
	위험 심각성→악플	.76	.07	16.19***
	위험 심각성→인터넷사기(피싱)	.66	.07	14.08***
	위험 심각성→ID도용	.68	.07	14.48***
	위험 심각성→개인정보유출	.60	.06	12.72***

※ *** p<.001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위험 심각성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만, 미디어의존은 3문항, 그리고 예방행동 의도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적일치도를 통해 신뢰성을 살펴본 결과, 미디어의존은 Cronbach′α=.97, 예방행동 의도는 Cronbach′α=.83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디어의존이나 위험 심각성, 주관적 지식, 예방행동 의도 모두 상호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계수(r)는 .19-.27의 범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관계수가 .80을 넘어감으로서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미디어의존	위험 심각성	주관적 지식	예방행동 의도
미디어의존	-			
위험 심각성	.21**	-		
주관적 지식	.27**	.24**	-	
예방행동 의도	.17**	.19**	.22**	-

※ ** p<.01

www.kci.go.kr

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4.44(df=1), p<.05로 나타났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카이스퀘어(χ^2) 값은 표본의 수에 민감함을 고려하여 나머지 적합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RMR=.02, GFI=.99, NFI=.96, IFI=.97. CFI=.97로 나타나 대부분의 적합도가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의 <표 5>,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우선 가설 1은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중의 미디어의존은 위험 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미디어의존은 공중의 위험 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중의 위험 심각성에 대한 미디어의존은 β=.21, p<.001로 나타나 공중이 사이버범죄 관련 뉴스나 정보에 대해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위험 심각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2는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중의 미디어의존은 주관적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중의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미디어의존은 주관적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지식에 대한 미디어의존은 β=.23, p<.001로 확인되어 공중이 사이버범죄 관련 뉴스나 정보를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주관적 지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3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주관적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고 가설을 살펴본 결과,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주관적 지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지식에 대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β=.27, p<.001로 사이버범죄에 대해 공중이 위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관적 지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4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예방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사이버범죄 예방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방행동 의도에 대한 위험 심각성은 β=.17, p<.001로 나타나 공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심각성이 높을수록 예방행동 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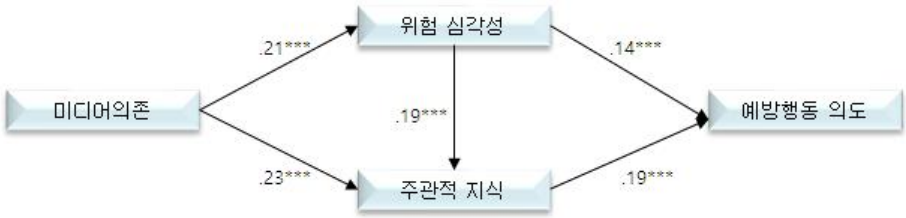
가설 5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중의 주관적 지식은 예방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중의 주관적 지식은 예방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방행동 의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β=.15, p<.001로 공중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예방행동 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ww.kci.go.kr

<표 5> 가설검증

경로	표준 β	S.E.	t
가설 1. 미디어의존→위험 심각성	.21	.02	4.83***
가설 2. 미디어의존→주관적 지식	.23	.02	5.35***
가설 3. 위험 심각성→주관적 지식	.19	.06	4.48***
가설 4. 위험 심각성→예방행동 의도	.14	.05	3.35***
가설 5. 주관적 지식→예방행동 의도	.19	.03	4.34***

※ *** p<.001



<그림 1> 가설검증 모형

V. 논의 및 결론

현재 사이버범죄 및 보안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연구흐름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이버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중심적 접근이며, 둘째는 행위적 차원에서 심리학적, 범죄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기반의 규칙이나 원칙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위험관리나 비용, 이익 등을 포함, 경제적 측면에서 사이버안전 문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것이다(Hua & Bapna, 2013). 이 중에서 본 연구는 공중의 행위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문헌검토를 통해 다양한 심리학적 요인들을 추출, 공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 검증하였다. 이에 가설검증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중은 미디어(TV)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심각성과 주관적 지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중이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를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사이버범죄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며,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나 예방 및 대처법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탐색행위가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 위험은 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공중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실제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Jin

www.kci.go.kr

& Han, 2014; Lupton, 2004). 특히, 공중이 사이버범죄 관련 뉴스나 정보를 미디어에 의존함으로서 그 위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정보탐색행위로 나아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기술적 위험에 대해 미디어가 공중의 위험 심각성을 형성시키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미디어는 간혹 위험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 현실을 전달하는 대신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선정적, 자극적 보도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미디어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등의 선정적 보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태도와 더불어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공중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공중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관련 정보나 예방 및 대처법 관련 주관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정보탐색행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중이 특정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탐색 및 정보처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이루어지며(김수정・성민정, 2011),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정보를 찾는 행위가 이루어짐을 시사한다(성민정・김수정, 2010). 결국, 공중은 사이버범죄에 대해 위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관적 지식을 높임으로서 위험 관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공중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위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주관적 지식을 높이고자 할수록 사이버범죄 예방행동 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듯이, 공중은 위험 심각성을 유발하는 공포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메시지가 권고하는 행동을 수행하고(유선욱 외, 2010; 조성은 외, 2012; Witte, *et. al.,* 2001), 그러한 행동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지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rislin, *et. al.,* 1998). 결국, 공중은 사이버범죄 관련 뉴스나 정보를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심각성과 주관적 지식이 높아지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심각성과 주관적 지식이 높을 때, 예방행동 의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 위험에 대해 미디어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공중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임을 시사한다(Jin & Han, 2014; Lupton, 2004). 그러므로 공중이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적 위험에 대해 미디어는 공중이 올바르게 위험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험사회에서의 위험관리는 정부, 공중, 미디어의 상호작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미디어는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지식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되거나 전달되지 않도록 정보와 지식의 다원성(김한균, 2012)을 추구하고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접근방법을 포괄하여 제시하면, 첫째, 표본이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www.kci.go.kr

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지역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중의 위험 심각성은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의존과 감정적 측면, 그리고 위험 심각성의 관계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량, 엄명용, 김태웅. 2007.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5): 27-35.

김수정, 성민정. 2011. 온라인 위험에 대한 상황인식과 사전지식 수준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유출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3(4): 528-567.

김원제, 이창주, 하연희, 조항민. 2009.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80-123.

김인숙. 201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2(3): 79-106.

김종흠. 2013.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가치지향성, 메시지 전달방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4(1): 155-175.

김진영. 2003. 미디어의존이론 연구: 미국 유학생들의 인터넷이용, 민족정체성, 미디어의존,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2): 119-154.

김한균. 2012.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경제 및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백선기, 이옥기. 2011.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양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신문의 내용분석과 보도양태를 중심으로. 한일국제심포지엄. 9: 23-57.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14.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http://www.ctrc.go.kr

서순이, 이정순. 2012. 일 지역 직장근로자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근관절건강학회지. 19(3): 340-349.

성민정, 김수정. 2010. 소비자의 위험인식에 따른 제품구매 및 커뮤니케이션 행동.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555-589.

송해룡, 김원제. 2005. 위험커뮤니케이션과 위험수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송해룡, 김찬원, 김원제. 2013. 미디어의존과 미디어 보도태도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성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9; 115-147.

송해룡, 조항민, 이윤경, 김원제.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분석 및 영역설정에 관한 연구.

www.kci.go.kr

10(1): 65-98.

송해룡.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공론장.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심준섭, 김지수. 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2.

유선욱, 박계현, 나은영. 2010. 신종플루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공포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3): 27-53.

이학식, 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6.0. 서울: 법문사.

전홍식, 부이응옥중. 2011. 소비자 혁신저항, 사전지식 및 광고유형이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2(1): 71-99.

조성은, 신호창, 유선욱, 노형신. 2012. 결핵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공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홍보학연구. 16(1): 148-177.

차동필. 2011.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청년실업에 관한 대학생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1(3): 325-348.

Alba, J. W. and J. W. Hutchinson. 1987. Dimensions of Consumer Experti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411-454.

Ball-Rokeach, S. J. 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 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4): 485-510.

Duhan, D. F., S. D. Johnson, J. B. Wilcox, and G. D. Harrell. 1997. Influences on Consumer Use of Word of Mouth Recommendation Source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5(4): 283-296.

Embar-Seddon, A. 2002. Cyberterrorism. *American Behavior Scientist*. 45(6): 1033-1043.

Fleming, K., E. Thorson, and Y. Zhang. 2006. Going Beyond Exposure to Local News Media: An Information-processing Examination of Public Perceptions of Food Safet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8): 789-806.

Flynn, L. R. and R. E. Goldsmith. 1999. A Short, Reliable Measure of Subjective Knowledg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6(1): 57-66.

Gauzente, C. 2010. The Intention to Click on Sponsored Ads: A Study of the Role of Prior Knowledge and of Consumer Profile.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7: 457-463.

Hardy, K. 2011. WWWMDs: Cyber-attacks Against Infrastructure in Domestic Anti-terror Low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7(2): 152-161.

Hua, J. and S. Bapna. 2013. The Economic Impact of Cyber Terrorism.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22(2): 175-186.

www.kci.go.kr

Jin, H. J. and D. H. Han. 2014. Interaction Between Message Framing and Consumers′ Prior Subjective Knowledge Regarding Food Safety Issues. *Food Policy.* 44: 95-102.

Kao, D. Y., S. J. Wang, and F. F. Huang. 2010. SoTE: Strategy of Triple-E on Solving Trojan Defense in Cyber-crime Cas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6: 52-60.

Kasperson, R. E., N. Jhaveri, and J. X. Kasperson. 2001. Stigma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oward a Frame Work of Risk Analysis. J. Flynn, P. Slovic, and H. Kunreuther. eds. *Risk, Media and Stigma: Understanding Public Challenge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and Sterling: VAL Earthscan Publications.

Mauro, I. J. and S. M. McLachlan. 2008. Farmer Knowledge and Risk Analysis: Postrelease Evaluation of Herbicide-tolerant Canola in Western Canada. *Risk Analysis.* 28(2): 463-476.

Lupton, D. 2004. A Grim Health Future, Health: Food Risk in the Sydney Press. *Risk & Society.* 6(2): 187-200.

Park, C. W., D. L. Mothersbaugh, and L. Feick. 1994. Consumer Knowledge Assess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2): 71-82.

Prislin, R., J. Dyer, C. Blakely, and C. Johnson. 1998. Immunization Status and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ediating Role of Beliefs, Attitudes, and Perceived Contro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12): 1821-1826.

Raju, P. S., S. C. Lonial, and W. G. Mangold. 1995. Differential Effects of Subjective Knowledge, Objective Knowledge, and Usage Experience on Decision Making: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4(2): 153-180.

Rao, A. R. and W. A. Sieben. 1992. The Effect of Prior Knowledge and the Type of Information Examined.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2: 256-270.

Rousu, M., W. E. Huffman, J. F. Shogren, and A. Tegene. 2007. Effects and Value of Verifiable Information in a Controversial Market: Evidence from Lab Auc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Economic Inquiry.* 45(3): 409-432.

Siegrist, M. and G. Cvetkovich.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19.

Sjöberg, L., B. E. Moen, and T. Rundmo. 2004. *Explaining Risk Perception.* Trondheim: An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aradigm.

Witte, K., G. Meyer, and D. Martell. 2001. *Effective Health Risk Manages: A Step-by-step Guide.*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www.kci.go.kr

송해룡: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1987)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위험관리, 위험수용 등이며, 한국사회 위험특성과 한국인의 위험인식 스펙트럼(2014, 공저), 위험거버넌스와 위험커뮤니케이션(2013),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2013, 공저), 위험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공론장(2012), 위험 인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2009, 공저), 나노와 멋진 미시세계(공저, 2007), 위험커뮤니케이션과 위험수용(공저, 2005) 등의 다수 저서가 있다(imokwg@daum.net).

김찬원: 중앙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2000)와 언론학 박사(2007)를 취득하고, 현재 유플러스연구소 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SSK 위험사회연구팀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험커뮤니케이션과 위험수용, 위험관리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Mediational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well-being in community elderly(2013)”, “공중의 사이버범죄 위험특성과 공포감이 결과적 심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2014)”등이 있다(ares6357@naver.com).

김원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2005)를 취득하고, 현재 유플러스연구소 소장(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위험관리정책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사회 위험특성과 한국인의 위험인식 스펙트럼(2014, 공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2013, 공저), 위험 인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2009, 공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전략(2008, 공저), 위험보도(2006, 공저) 등이 있다(wonje5@daum.net).

www.kci.go.kr